



정완용

한국포장기계협회 회장

산·학·관 트리오의 화음이 조화돼야

무더운 삼복더위도 어느덧 물러가고 시원하고 선선한 바람이 옷깃을 스미는 계절의 계절 가을이 문턱에 성큼 다가와 있다. 세월은 무상한 것이 꽃피고 새우는 봄철이 좋은가 했더니 홍취되기도 전에 지루한 장마와 더위가 우리결을 기승스럽게 와있더니 이제는 그것도 뒤로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 왔는가 보다. 이제 이 가을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결을 떠나고 말 것이며 또 한해가 저물어 갈 것이다. 이제 온누리가 황금의 물결로 물들어서 결실의 계절로 접어들어 저마다 최고의 결실로, 최상의 결실로 GOAL IN하려는 순간에 와있다. 벌써 기업을 시작 한지도 외람되기는 하지만 어언 25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새삼 세월의 무상을 느끼는 것은 나만의 소녀같은 애수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해서 금년의 이 가을처럼 나홀로 외로움과 번뇌에 쌓여본적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정신없이 뛰다보니 봄, 여름, 가을, 겨울 한해가 흘러갔고 이렇게 해서 5년, 1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까지 왔으니 너무 마음이 나약해진 것이 아닌가 하고 다시 한번 옷깃을 여며 보기도 한다.

이 가을처럼 뭉게구름 뜬 높은 하늘이 있어 애수에 젖는가 하면 힘차고 우렁찬 함마소리와 기계소리가 있었기에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어 기업을 키워오지 않았던가?

얼마전 신문지상을 통하여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을 육성키 위하여 대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지시가 되었으며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에 걸맞는 대응방안으로 중소기업체의 지원을 마련하는 것을 보고 정부당국의 배려와 대통령의 관심에 대하여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에 힘입어 우리 중소기업들의 기업경영이 활발해지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경쟁력을 갖게 될때에만 국가경쟁력이 생기리라 믿는다.

국가 경쟁력이란 온국민 전체가 힘을 합하여 생산성을 올릴 때 비로소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우리 기계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리라고 생각이 된다.

기계공업의 분야도 매우 넓겠지만 그중에서 포장기계 분야도 국가경쟁력 강화의

일익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국가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 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포장기계협회의 잠정조사에 의하면 국내에서 포장기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약 300여업체에 달한다고 하며 그중에서 인원 100명 이상 매출 100억 이상을 기록하는 업체는 한 두개 기업에 불과하고 대부분 10명 내외가 80%, 30~40명의 업체가 10%에 불과한 실정으로 극히 포장기계산업의 영세성을 느낄 수 있다.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 인력자원문제이다. 이는 국가경쟁력의 전분야에서 중요한 핵심요소이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술전문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공업계의 공고, 전문대, 대학에서 일반적인 기계분야 교육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있지만 절실히 요구되는 인력은 기계현장에서 땀을 흘려 일할 일꾼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교육을 마친 일꾼, 기능인력의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므로 정부 또는 교육기관에서는 전문기술교육을 양성하여 기업체에 배출함이 경쟁력 강화의 제일이라 생각된다.

둘째로 국산 부품 및 소재의 개발이다. 국산화된 기계라 할지라도 중요부품과 부속은 일본 또는 미국, 구라파 부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포장기계산업의 현실이고 보니 경쟁력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다고 본다. 그럼으로 정부의 자금지원이 소재국산화에 적극 지원함이 필요하며 민간주도의 부품개발을 더욱 활발히 하도록 정부당국의 지원을 요청하며 대기업들이 완제품 조립개발에 앞서 부품개발에 우선하도록 제도화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경영환경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이 실의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여 의욕을 상실함으로 할 수 없이 기업경영을 하는 경우가 주위에 적지 않은 것 같다. 의욕이 적다고 나무랄 수도 있으나 계속 상승하는 인건비, 자재비 및 관리비는 그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안정된 경영환경을 유지하도록 물가상승의 적절한 억제와 통제는 산업발전의 열쇠라고 본다.

이상의 모든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져 국가경쟁력을 갖춘 기계공업이 육성되려면 정부 혼자 힘도 기업자체의 힘도 독립적으로는 힘들다고 보며 산·학·관의 트리오가 화음을 이루어야 정부의 지원도, 학교의 연구도, 산업체의 노력도 그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본다.

천고마비 결실의 계절 외롭고 쓸쓸해하지 않기 위해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우리 중소기업체가 특히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는 포장기계업체가 활발한 기지개를 쳐도록 시원한 해결의 소나기라도 내렸으면 하고 염원해 본다. ☐